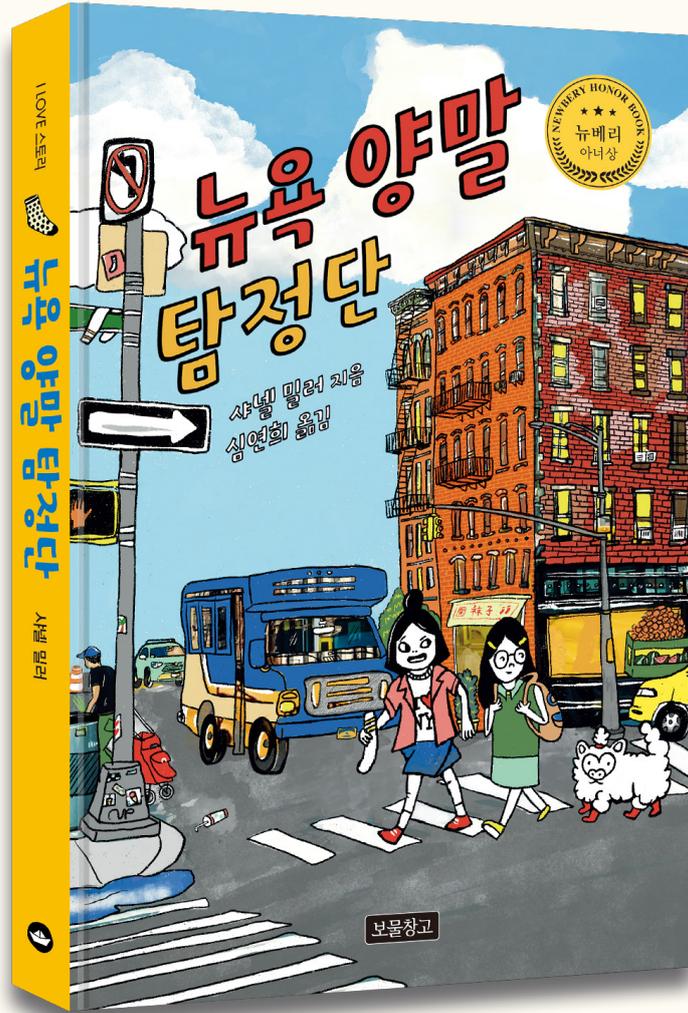


|어린이, 초등 저학년

〈뉴욕 양말 탐정단〉

다니엘 나예리 글 | 다니엘 미야레스 그림 | 원지인 옮김 | 보물창고 펴냄

★2025 '뉴베리 아너상' 수상작★



『뉴욕 양말 탐정단』은 눈 밝은 독자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물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책”이라는 입소문이 널리 퍼져 ‘올해의 화제작’ 리스트에 올랐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아동도서상인 ‘뉴베리상’ 수상에 이르게 되었다.

주인공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매력적인 열 살짜리 소녀 ‘매그놀리아 우’이다. 여름 내내 부모님의 세탁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매그놀리아는 심심하고 외롭지만 매우 창의적인 캐릭터이다.

‘목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매그놀리아의 일상은 뉴욕으로 이사 온 소녀 ‘아이리스 램’을 만나면서 활짝 피어난다. 금세 마음이 통해 절친이 된 두 소녀는 부모님의 세탁소에 버려진 양말들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의기투합하고 ‘양말 탐정단’이 되어 뉴욕 시내를 활보하기 시작한다.

읽기 전 활동

1.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서 이야기 나눠 보세요.
2. '뉴욕 양말 탐정단'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3. 탐정처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해결했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읽기 중 활동

1. 매그놀리아가 양말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뉴욕 양말 탐정단'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나요?
3. 나도 양말 탐정단이 되어 보세요. 각자(혹은 모둠별로) 검은색과 흰색 체크무늬 양말, 분홍 니트 양말, 플라밍고 양말, 아이스크림 양말 중 하나를 골라 매그놀리아와 아이리스가 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서 양말 주인을 찾아보세요.
4. 우리 부모님과 친구네 부모님, 우리 집안과 친구네 집안을 비교했던 적이 있나요?
친구네가 부러웠던 점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집의 자랑 거리를 적어 보세요.



빙치링 방울방울 세탁소에서 생일을



조금 있으면 매그놀리아는 열 살이 된다. 예전부터 빨리 열 살이 되고 싶었다. 숫자 9는 땅에서 움푹 찌처럼 너무 작아서 누구라도 쉽게 밟아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자리 숫자 10은 강해 보였다. 칼과 방패처럼 생겨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사람의 무기 같았다.

그렇다고 매그놀리아가 세상을 정복할 건 아니었다. 울여름도 '빙치링 방울방울 세탁소'에 꼭 박혀 지낼 예정이었다. 매그놀리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매그놀리아의 부모님은 이 세탁소를 운영했다. 그리고 매그놀리아는 생일 파티도 안 할 작정이었다. 뉴욕시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젠 매그놀리아를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는 잔디밭을

5. 매그놀리아와 아이리스는 인종 차별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어요. 특히 아이리스는 ‘돌아가’라는 누군가의 낙서를 보고 무척 힘들어하고 슬퍼했어요. 아이리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내가 가장 아끼는 옷이나 양말 또는 신발을 그려 보고, 그 사연과 함께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2. 매그놀리아와 아이리스 같은 절친이 나에게도 있나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나는 그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3. 평소에 친구에게 궁금했던 점을 10문 10답 질문지로 만들어 나누고, 친구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적어 보세요.
4. 친구와 싸운 적이 있거나 오해로 다투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또 어떻게 화해했는지 적어 보세요.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 친구에서 사과의 편지를 적어 보세요.

플라밍고 양말



매그놀리아와 아이리스는 플라스틱 선풍기를 회전시켜 놓고 세탁소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린의 재능이 이토록 뛰어나다는 걸 우리만 알고 있더니, 너 무하단 생각이 들어.”
 매그놀리아가 말할 때 선풍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나부꼈다가 내려앉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자기 일을 알릴지 말지 결정하는 건 엘린 본인이니까.”
 아이리스는 이마에서 땀을 훔치더니 덧붙여 말했다.
 “선풍기 좀 더 세게 틀 수 없어? 너무 더워. 수영하고 싶은데, 근처에 수영장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
 뉴욕에도 공공 수영장이 있었지만, 매그놀리아는 수영을 배운

